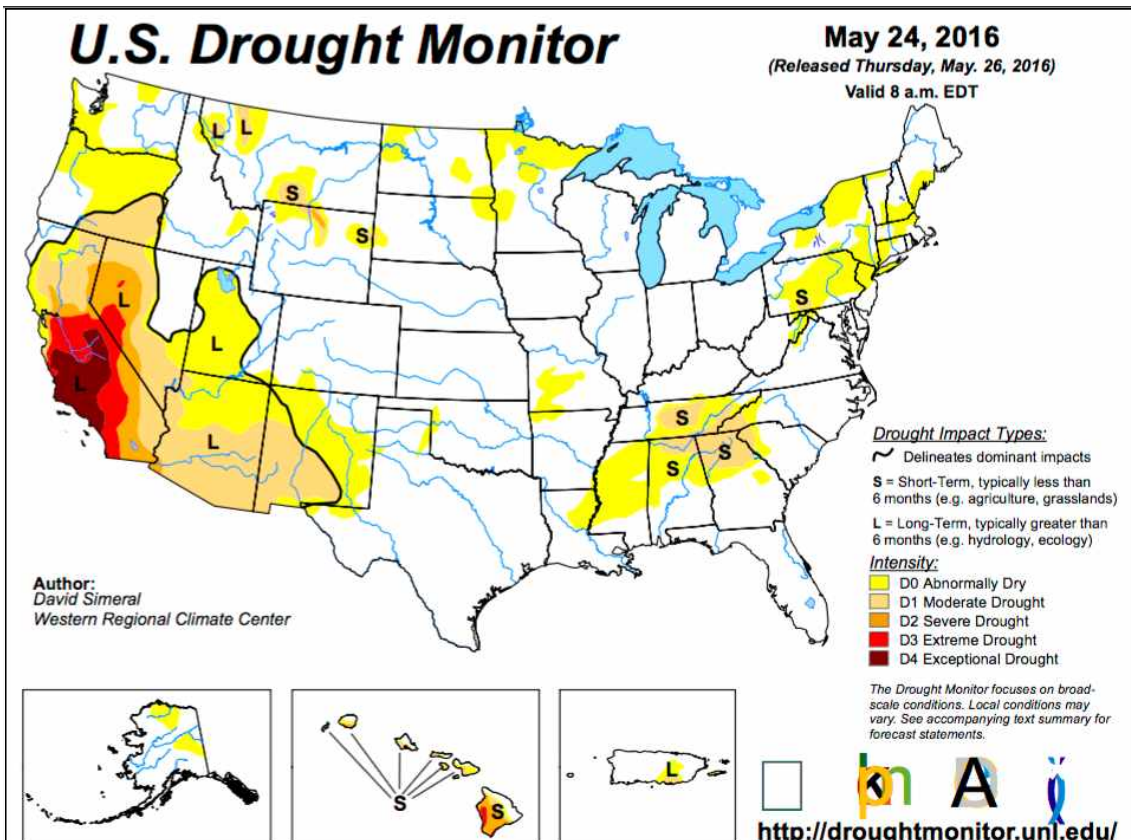


6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2)

□ 미국 기후 현황(5/22~5/28)

서부 일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일대에서는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대평원 동부에서부터 옥수수 재배지 서부 및 중남부 일대에서는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초지와 여름작물 재배지 일대의 저수량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남부 평원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내린 비로 병해충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고, 겨울밀 수확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텍사스 동부에서도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남동부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동부는 덥고 습도가 높은 반면, 남서부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안에서는 열대성 태풍인 Bonnie가 발생했지만, 29일 일요일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했다. Bonnie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옥수수 지대 동부에서는 맑은 날씨로 옥수수와 대두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서북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북부 내륙 산간지역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5/23~5/29)

대평원 일대와 미시시피강 하류 일대에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알칸사스, 캔사스, 텍사스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년에 비해 3인치 많은 비가 내렸다. 텍사스 남동부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강우량이 9인치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고, 침수피해도 발생했다. 그밖에도 서부와 동부 일부에서도 비가 내렸다. 로키산맥과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지만, 오대호 인근과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위스콘신, 미시간, 뉴욕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9°F 이상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5/22~5/28)

■ 유럽: 프랑스 남동부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25~7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북부 유럽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등 번덕스러운 날씨를 보였다. 다뉴브 강 일대와 스페인 남부와 북부 등에서는 겨울밀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위성사진으로 농지의 생육상태를 관측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생육상태가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 전망도 밝은 편이다. 토양 수준 상황도 좋은 편이다.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까지 올랐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비가 내렸고,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벨라루스 남동부, 러시아 남부와 서부 등에서는 10~9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북서부와 동부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왔지만, 대체적으로는 비가 내렸다. 지난 5월 강우량은 1980년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평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많이 내린 덕분에 겨울밀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옥수수과 해바라기의 파종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30~33°C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동아시아: 동부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남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저수량은 좋은 편이다. 북부 평원지역인 Henan, Anhui, Jiangsu 등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밀 수확작업이 보통 6월 중순에 시작되어 7월 말쯤에 끝이 난다. 북동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옥수수와 대두 절반이 발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5월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본에서는 2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밀과 보리, 캐놀라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도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퀸즐랜드에서도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농작업을 다소 지연시키기도 했지만, 여름작물 수확작업은 대체적으로 끝이 났고, 비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10~20°C 내외를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La Pampa, Buenos Aires 일대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Coedoba 북부에서는 주 초반 밤사이 기온이 영하 1°C 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중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내외에 머물고 있다. 북부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26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은 75%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의 90% 수준과 비교했을 때 느린 편이다. 옥수수 수확률은 각각 32%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 일대에서는 단비가 내렸고, 중부와 북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Parana,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서부 및 파라과이 등에서는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의 지난 한 주간 기온은 평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밤사이 기온은 5°C 미만까지 내려갔다.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Parara 주정부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2모작 옥수수의 54%가 filling 한 것으로 나타났고, 8%가 개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Mato Grosso, Piaui 등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고, 이모작 옥수수와 면화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